

“부산불교 100년, 그 가치를 재조명한다”

부불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추진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가 부산 불교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이하 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를 창간하며 학술적 근거 자료 및 연구를 위한 ‘부산불교교육학술원’을 개원한다.

연합신도회는 지난 8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불교 역사 재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윤희 회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호국 불교의 중요성 및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스님들에 대해 알릴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한 역사 속에 불교의 중요한 위치가 간과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며 “100년간 부산불교의 역사를 조명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산불교 100년사>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 광복, 6·25이후 현대화 과정을 담고 그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찾고 숨겨져 있던 면을 찾아 그 가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각계 전문가와 전문가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33인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올해 2015년을 기점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집필을 시작해 4년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정 및 교정을 이어

간다. 책 출판 기념회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 될 예정이다.

이윤희 회장은 “3·1운동 민족 대표였던 백용성 스님의 활동과 공로는 너무나 훌륭한데 그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백용성 스님과 같이 불교계에 숨은 보석같은 고승 대덕 스님들을 소개 할 것이다”며 “그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신뢰성 있는 책으로 완성할 예정이며 후세에도 뛰어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1919년~2019년 불교 역사정리

3·1일절 100년 맞아 출판 계획 각계 지도자 모아 ‘108인회’ 결성 부설 부산불교교육 학술원 개원도

<부산불교 100년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 1기를 모집한다. 향후 기수별 클럽제로 운영 될 ‘108인회’는 부산의 정치·경제·문화 지도자들과 재가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장 및 CEO컨퍼런스 임원단, 16개구군의 연합신도회 회장단, 각종단의 사찰 및 신도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윤희 회장은 “108인회를 구성, 책 발간 뿐 아니라 부산 불교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부산 불교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 100년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직원들이 함께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108인회 모집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을 위해 연합신도회는 ‘부설 부산불교교육학술원’을 개원하고 객관적 자료 취합과 연구를 위해 박자를 가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은 前 부산교수복지회 회장 박영병 교수가 맡는다. 앞으로 학술원은 불교 교육 및 컨퍼런스 교육을 진행하며 고증화가 필요한 역사 자료 수집 및 자료화에 힘쓸 계획이다.

박영병 교수는 “불교 역사를 찾아 정리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심의 위원 및 연구 위원을 만들고 검증 거쳐서 제대로 된 불교역사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

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4년간의 탐고 과정을 거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많은 자료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2015년 팔관회 행사 및 사명대사추모대제’ 일정이 변경됐음을 알렸다. 팔관제계 토론회는 9월 4일 오후 3시 안국선원교육관에서 울산 스님을 모신 가운데 개최한다. 기조연설은 수진 스님, 주제 발표는 지현 스님이 나선다.

이어 사명대사 열반 405주기 추모대제는 10월 8일 오후 3시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봉행한다. 1부 호국영산대제, 2부 추모대법회로 진행된다. 10월 17일 12시 40분에는 호국기원대법회, 팔관제계수계식, 백희가부가 범어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가톨릭 신부·신자 템플스테이 피정 ‘화제’

은해사에서 8월 30일부터... 신부·스님 군대 인연으로

가톨릭 신부와 신자 70여명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로 피정(避靜)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제2대구구 대구구 장 박성대 신부는 8월 30일 영천 은해사에서 피정을 했다. 가톨릭 신자가 개별적으로 사찰로 피정을 떠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단체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템플스테이 피정은 박 신부와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이 군에서 군종장교로 함께 생활한 것이 인연이 됐다. 두 사람은 전역 후에도 친분을 이어갔고 보월 스님이 은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을 관리하는 일을 맡자 현지를 둘러본 박 신부가 은해사의 교육 장소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박 신부는 자신이 주관하는 성서모임의 신자들과 1년에 2번 떠나는 피정 가운데 이번 여름 피정을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월 스님은 박 신부 일행에게 1시간 가량 특별 법문도 할 예정이다. 박 신부는 “일반적으로 종교 행사는 자신들의 시설에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처럼 사찰에서 피정을 하면 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 8월 24일 부산 흥법사 대광명전서

부산 조계종 20여개 사찰과 재가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해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올미년 하안거 재가안거수행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8월 24일 부산 흥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린 이번 해제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 심산 스님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제법회 1부에서는 금강경 독송과 참선, 다라니, 사경, 독경, 기도 등 참가자들의 수행법에 맞춰 수행 경행을 나누는 ‘수행 모듬 나누기’를 진행했다. 수행 모듬 나누기 진행 후 참가자들은 각 조별로 나눠 이야기한 수행담을 모아 발표하며 서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올미년 하안거 재가안거수행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로의 수행을 도왔다. 법회에서 회장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행의 공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며 더욱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자연 훼손하고 수행환경 파괴하는 재앙의 출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등반대회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회장 심규명·이하 대책위)는 8월 22일 신불산을 등반하며 자연환경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마백)와 본말사 스님 200여명, 시민단체, 불교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8월 22일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입구에서 경과보고 및 영축산과 신불산 보전을 위한 호소문 낭독, 격려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간월산장에서 간월재까지 약 4.1km의 산행을 한 뒤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반대 기원제를 올렸다.

통도사 유나 천진 스님은 “통도사와 통도사 인근의 산이 소수의 개발자들과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있으며 자연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 지경에 놓여 있다”며 “영축산에 깃들여 사는 수행자로서 오늘 이곳 신불산에 모여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되는 영남알프스의 낙동정맥이 파괴되는 재앙의 출발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세금 낭비 행위이며, 간월계곡의 돌풍으로 더 큰 인재를 몰고 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근처에는 알프스온천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스님과 사부대중들이 신불산에 올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기원제를 봉행했다.

변영희 및 지역 청년 20여명이 찾아와 “스님들은 속세의 일에 참견말라”며 케이블

카 설치를 지지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김천 수도암, 경전공부로 하안거 해제

9월 3일~6일, 원순 스님 특강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의 경전 릴레이 법회가 김천 수도암(주지 원인)에서 개최된다.

김천 수도암 봉황루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 원순 스님은 자신이 역제한 저서 <진심직설>, <신심명 증도가>를 교재로 하루에 세 차례씩 강설한다. 개강일은 9월 3일부터 9월 6일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진심직설>은 고려 중기 송광사 증흥조보조 지눌 스님(1158~1210)의 저서다. 이 책은 만법(萬法)의 근본이 진심임을 밝히고 그 본바탕과 쓰임새, 닦는 법 등을 밝힌 선서(禪書)이며 지눌 스님의 저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원순 스님의 또 다른 역해 저서인 <신심명 증도가>는 중국 선종 3조 승찬 스님의 저술 <신심명>과 영가스님의 저술 <증도가>를 함께 다룬 책이다.

원순 스님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수행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며 “마음껏 공부하고 소통하며 불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학인들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암 주지 원인 스님은 “뛰어난 수행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수도암에서 승가와 재가자가 함께 오로지 불법 공부를 위한 법회를 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참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승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한국제지(주)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농협: 010-2094-2991-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12월(벽걸이형)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 1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 800원
- 규격: 9.5cm × 13.4cm
- 매수: 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 600원
- 규격: 8.9cm × 9.5cm
- 매수: 16장